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23년 3월 31일(금)

---(음력 2월 10일)---

Пятница

31 марта 2023г.

№ 12 (12029)

1949년 6월 1일 창간

Цена свободная



▲ 2023년 3월 29일. 유즈노사할린스크 공항. 막내 딸 부부와 함께 영주귀국 길에 나선 권형재 (92세) 어르신.

(이예식 기자 촬영)

## 2022영주귀국사업지원으로 최고령자인 권형재(92세) 씨 한국으로 떠나

주유즈노사할린스크출장소 2023년 영주귀국 사업 실행

보도된 바와 같이 '사할린동포 지원 특별법'으로 시행되는 2022년 영주귀국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사할린 동포 350명 중, 1세대를 포함한 동반가족 63명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배를 타고 지난 17일 한국(동해항)에 도착했다. 이날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동해까지 직접자사 측 인솔자가 동행하였다. 추가로 배로 집단적으로 가는 동포들은 30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출항하여 31일 동해항에 도착한다고 전해졌다. 이번에 사할린에서 11명이 출발한 동포중에서 1931년생(여권상, 실제 1930년생)인 권형재 어르신이 막내딸과 사위와 함께 한국으로 떠났다. 92세의 나이로 거동이 편치 않아 지팡이에 의지하고 귀가 좀 어둡지만, 기억력이 좋고 정신이 맑다. 10살때 부모님 따라 사할린으로 온 그는 나중에 강제동원된 경상남도 출신인 정성부 씨와 결혼하여 거의 한평생 우글레고르스크 시에서 거주하였고, 최근 23년은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살고있다. 고향방을 밟지 못한 남편과는 1995년 사별한 이후, 한국에 두 번(1998년, 2006년) 방문한 적이 있다고 하였다. '어르신, 한국

에 가는 소감이 어떠세요?'라는 기자의 질문에 그는 아주 간단하게 '좋지요'라고 답변했다.

박상태 주유즈노사할린스크 출장소장은 29일 어르신을 배웅하기 위해 유즈노사할린스크 공항에 나와 여생동안 고국에서 오래 건강하시기를 기원하였다.

한편 현지 영주귀국 사업을 맡고 있는 주유즈노사할린스크출장소에서는 '사할린동포 지원 특별법'시행에 따른 영주귀국 사업과 관련된 신청지원서 접수를 받고 있다. 박상태 출장소장은 2022년 영주귀국사업은 여러 이유로 지연되었지만 올해에는 대한적십자사, 외교부, 주한인협회와 함께 잘 협의해서 예정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지방에 거주하는 1세대와 2세대 분들 중 영주귀국사업에 대해 모르는 동포분들을 대상으로 올 4-5월에 지역(포로나이스크, 마카로브, 우글레고르스크 등)을 방문하여 설명회를 가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참고로, 올해 영주귀국 사업 선정인원은 270명이다.

(취재: 배순신, 이예식)

## 전러시아 고용 박람회는 사할린에서 열린다

전러시아 박람회 "러시아에서 일자리, 가능성의 시간"의 지역 단계가 4월 14일과 15일에 열린다. 주 중앙도시, 및 지방에서 일자리박람회도 열리고, 정보 회의, 노사 관계에 관한 세미나 및 조치가 개최된다. 다양한 분야를 대표하는 수십 명의 고용주가 초대된다.

직업을 찾거나 업무를 바꾸려고 하는 지역 거주자는 고용 센터의 전문가에게 자문 지원을 받고, 고용 서비스의 무료 교육 및 관련 서비스의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고, 기업 및 조직의 서비스 직원 대표를 만나게 된다.

고용주는 온라인 형식을 포함하여 회사를 소개할 수 있다. 이것은 국가의 여러 지역에서 온 무제한의 전문가를 다룰 것이다. 지원자는 노동 보수 수준과 사회 보중에 대해 이야기하고 면접도 볼 수 있다. 박람회에 참여하려면 고용주는 먼저 "러시아의 일"포털을 통해 공석에 대한 신청서와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전러시아 고용 박람회는 지원자가 실시간으로 직업이나 인턴십을 찾을 수 있고 회사가 직원을 찾을 수 있는 현대적인 플랫폼의 전체 복합체"라고 사할린 주의 노동 및 고용 기관 책임자인 타치야나 바비츠는 말했다. "동시에, 이 행사는 고용주와 지원자의 상호 작용뿐만 아니라 업무 검색 및 경력 구축 주제에 대한 신청자를 위한 세미나, 마스터 클래스 및 트레이너 교육을 의미한다."라고 그는 덧붙였다.

## 단신

### 4월 1일부터 러시아에서 연금이 13,3% 연동

러시아에서 공적 연금이 2023년 4월 1일부터 13.3% 연동된다.

매년 4월 1일, 인플레이션에 따른 공적 연금이 인덱세이션된다. 올해 물가상승률은 지난해 물가상승률보다 높은 13.3%가 될 전망이다. 지역 지불도 색인화된다.

또한 올해 연금자는 승리의 날 맞아 일시금 1만루블리를 4월 연금과 함께 받게 된다.

디지털 연금을 도입하는 가운데 4월 1일부터 디지털 루블리가 파일럿 모드로 나타날 것이므로 디지털 연금도 현실이 될 수 있다.

근무하는 연금자에 대한 보험료가 인상된다. 이들이 직장에서 비상 사태가 발생한 경우 보험 금액은 두 배가 된다.

모든 인덱싱은 자동으로 진행된다. 연금자는 사기 또는 추가 수수료 징수 시도를 피하기 위해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도록 한다.

### 주한인협회, 임시 회의 소집

사할린주한인협회 오진하 회장이 2023년 4월 1일 정오 12시 유즈노사할린스크시 한인문화센터에서 사할린주한인협회의 임시 대표자회의(컨퍼런스)를 소집한다고 전했다. 회의에 대표로는 사단법인 단체 (1명씩), 지방자치체 한인회(2명씩) 참가할 권리가 있고 그 외 누구나 자유 입장할 수 있다.

회의에는 사할린주한인협회 새 회원 가입 문제, 2023년 1/4분기 사업 보고, 2022년 사할린주한인협회의 경리재정사업 분석 및 기타 문제를 논의한다.

### 사할린주, 인플루엔자, 독감 등 현황

사할린 지역에서 사스 (SARS)와 인플루엔자의 발생률에 대한 상황은 감소하는 경향이 있지만 여전히 불안정하다. 3월 20일 - 26일 간에 2,350명의 확진자가 등록되었다고 러시아소지감독청 사할린주관리국이 밝혔다.

감염의 원인은 RS-바이러스, 단락 및 리노 바이러스이다. 발병률은 인구 10000명당 48.5명으로, 전염병 역치 수준보다 41.1% 미만이다.

지난 주에 대부분 성인이 감염되었는데 총 수의 1,540건이다. 어린이들 중에서는 대부분 2세 미만의 환자들이 많았다.

폐렴 환자의 수는 26%감소했다. 모두 37건의 폐렴이 등록되었다.

### 기시다 총리, 사할린 프로젝트에서 점유율을 유지한다고 발표

노위스티 러시아통신사에 따르면, 후미오 기시다 일본 총리가 에너지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일본은 사할린 프로젝트에 계속 참여할 것이라고 의회의 상원 회의에서 언급했다고 밝혔다.

기시다는 액화가스 (LNG) 수요가 증가 될 것임을 발표하고 일본은 에너지 공급문제에 대해 이미 G7 개국과 동의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2022년 말에 일본은 석유 수입을 90%, 석탄을 60%줄였다.

새고려신문

## 2023년 신문 구독 계속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23년 새고려신문 구독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 지를 애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1개월 구독료는 101루블리입니다. 신문 인덱스는 ПП575입니다. 신문은 주내 모든 우체국에서 구독할 수 있습니다. (편집부)



### 법무부, 중대재해 · 인천공항 출국대기실 관리 인력 증원

(서울=연합뉴스) = 법무부가 중대재해 예방·관리, 공항 출국대기실 운영 등 업무에 필요한 인력 10여명을 늘리는 증원안을 내놴다.

30일 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게재하고 이 같은 증원 계획을 밝혔다.

법무부는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보건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법무부와 산하기관인 국립법무병원에 담당자 1명씩(각 5급·7급)을 두기로 했다.

입국 허가를 받지 못한 외국인이 출국을 기다리는 장소인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 출국대기실에는 운영 인력 4명(8급)을 증원할 계획이다. 인력 증원으로 출국 대기하는

외국인들의 처우가 다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울산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신설된 보호과 근무 인력을 2명(5급·6급 각 1명) 늘리고, 올해 증축되는 서울구치소 수용동 교대근무에 필요한 인력 4명(7·8급 각 1명, 9급 2명)도 증원한다.

또한 러시아 거주 사할린 동포의 국적 판정 심사 업무를 위한 인력 1명(6급)도 증원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대통령령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에 따라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차원"이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증원안은 2025년 4월10일까지 한시적으로 유지된다.

В связи с тем, что деятельность РООСК полностью парализована, президент РОО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О Тин Ха объявил о созыве внеочередной конференции, которая состоится 1 апреля 2023 года в 12:00 часов в Корейском культурном центре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пр.Мира 83А).  
**Норма представительства:**  
 \*Представитель от обще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юридического лица) -1 представитель.  
 Представители от муниципаль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 2 представителя.  
 Вход для всех желающих свободный.  
 В повестке конференции: прием новых членов организации, отчет о деятельности за 1-ый квартал 2023 г., анализ хозяйственно-финансов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РООСК за 2022 год, разное.

### 사할린주, 사할린 국립대의 "사할린테크" 캠퍼스 프로젝트 진행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는 국가 프로젝트 "과학과 대학"의 일환으로 고등 교육 기관의 캠퍼스를 설립하는 연방 프로젝트의 구성 및 실행에 관한 러시아 연방 과학 및 고등 교육부 실무 그룹 회의에 참여했다. 이 행사는 알레리 팔코프 대표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원은 2명이다.

건설 작업의 첫 번째 단계인 부지 내 낡은 건물 철거가 최근 완료되었다. 두 번째 시설인 연구 및 교육 단지는 과거에 장교회관이 위치했던 부지에 지어질 예정이다. 과학 및 교육 단지에는 학술 건물,

현재 17개의 세계적 수준의 캠퍼스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 이 분야에서 연방 구성 기관의 업무를 평가하면서 장관은 사할린 주에 관심을 보였다. 사할린 지역은 이미 1,500명 규모의 캠퍼스인 첫 번째 시설에 대해 글라브고스 엑스페르티즈로부터 긍정적인 결론을 받았다. "이번 주에 두 번째 부지인 과학 교육 단지에 대한 긍정적인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훌륭한 성과입니다. 알레리 이고리예비치, 당신과 당신의 팀에게 축하를 전합니다. 계속 정진하십시오!"라고 러시아 연방 과학 및 고등 교육부 장관이 지적했다.

"사할린테크" 캠퍼스는 유즈노사할린스크의 새로운 과학, 비즈니스 및 문화 중심지가 될 것이며, 재능 있는 젊은이들이 모이는 명소가 될 것이다. 이 캠퍼스에는 1,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캠퍼스와 연구 및 교육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첫 번째 부지는 서로 연결된 세 개의 9층 건물로 구성된다. 각기 거주용 방의 수용인

기술 공원이 있는 과학 실험실, 도서관, 회의실, 공공 및 비즈니스 공간, 심지어 온실까지 포함될 것이다.

"캠퍼스 "사할린테크"는 섬의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 프로젝트의 시행은 우리 대학의 교육 및 인사 정책과 연구 업무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실제로 글로벌 표준을 충족하는 새로운 고등 교육 기관을 만들고 있다. 그 안에서 사할린과 쿠릴 주민들은 지역을 떠나지 않고도 최신 교육을 받게 될 것이다. 개편된 대학은 사할린 연안에서 석유와 가스를 생산하는 국내 기업들을 위한 직원을 양성할 예정이다. 이러한 협력은 졸업생들에게 전망있는 일자리를 제공할 것이다."라고 알레리 리마렌코가 말했다.

사할린 국립대학교의 "사할린테크" 캠퍼스 프로젝트는 러시아에 세계적 수준의 캠퍼스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연방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어 연방 예산의 지원을 받게 되었다.

### 이 모 저 모

#### "통합 받아쓰기" 4월 8일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진행

매년 러시아 주민들은 "통합 받아쓰기"에 참여하여 문해력을 테스트한다.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는 보통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 행사에 참여한다. 2023년에는 4월 8일에 이 행사가 예정되어 있다. "통합 받아쓰기"는 매년 참가자들이 쓴 텍스트를 통해 자신들의 러시아어 지식을 테스트할 수 있는 교육적인 캠페인이다. 이 행사는 2004년 3월 11일 노위시비르스크에서 처음으로 시작되었으며, 올해의 받아쓰기 행사는 작가 와실리 아브체코가 맡았다. 참가자들은 극동의 탐험가이자 작가인 블라디미르 아르세니예브에 관한 글을 쓰게 된다.

사할린주의 문화 및 기록부서에 따르면 사할린 주 남부의 소도시에서는 3개의 장소에서 이 행사가 진행되며 사할린 주의 유명한 미디어 인물들이 본문을 낭독할 예정이라고 한다. '러시아는 우리 역사' 역사공원에서는 체호브센터의 예술감독인 알렉산드르 아게예브가 본문을 낭독하고, 어린이 도서관에 있는 장소에서는 ASTV 미디어회사 제작전문 임원 알료나 바리노와, '사할린 섬' 체호브의 책 문학 미술 박물관에서는 유즈노사할린스크 제3 김나지아의 러시아어 및 문학 교사이자 '2022년 러시아 올해의 교사 대상' 결승자인 이리나 오를로와가 본문을 낭독한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 행사에 참여할 수 있지만 참가 등록은 필수이다.

이 행사의 코디네이터인 아나스타시야 스테파넨코에 따르면,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이번 행사가 12번째로 진행된다고 한다. 받아쓰기 결과 발표후, 문법 오류를 검토하고 우수한 참가자에게 인증서를 수여하는 전통적인 시상식이 있을 예정이다.

#### Тотальный диктант пройдет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8 апреля

Ежегодно россияне проверяют свою грамотность, участвуя в акции «Тотальный диктант».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как правило, в мероприятии участвуют тысячи человек. В 2023 году акция состоится 8 апреля. «Тотальный диктант» — ежегодная просветительская акция, участники которой могут проверить свои знания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написав текст под диктовку. Первая акция состоялась 11 марта 2004 года в Новосибирске. Автором диктанта в этом году стал писатель Василий Авченко. Участники напишут текст о путешественнике, писателе, исследователе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Владимире Арсеньеве.

Как рассказали в министерстве культуры и архивного дел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диктант пройдет на 3- площадках, тексты продиктуют известные медийные личност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историческом парке «Россия — моя история» текст будет читать художественный руководитель Чехов-центра Александра Агеева, на площадке детской библиотеки - креативный директор медиахолдинга АСТВ Алена Барина, в музее книги Чехова «Остров Сахалин» текст будет читать преподаватель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и литературы гимназии № 3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финалист конкурса «Учитель года России-2022» Ирина Орлова.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 акции может любой желающий. Но обязательна регистрация.

По словам координатора акции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Анастасии Степаненко, в областном центре мероприятие проводят в 12-й раз. После проведения диктанта пройдет традиционная встреча по разбору грамматических ошибок и вручение сертификатов отличникам.

#### 사할린의 우글레고르스크에서 한 여성이 시청에 강아지가 담긴 상자를 남겨두고 떠나

사할린의 우글레고르스크 행정부에서 시끄러운 사건이 있었다. 신원불명의 한 여성이 건물에 침입해 사무실 한쪽에 강아지 12마리가 담긴 상자를 두고 갔다고 astv.ru에서 보도했다. 지역 주민에 의하면 이 지역에 유기견 보호소를 짓기로 오래 전부터 약속되어 있었지만 아직도 지어지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고 한 행동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이 여성은 이제부터는 공무원들이 유기견의 생명을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시청에서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지만 강아지가 든 상자를 받아들였다.

"한 여성이 12마리의 강아지를 행정기관에 유기했고 시청부가 책임져 줄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시 정부는 이들을 돌보아야 하는 권한이 없다고 말하며, 강아지들은 버려지지 않았고 깨끗이 씻겨주고 먹이도 잘 먹이는 등 자원봉사자들이 24시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시민들에게는 이들 강아지들을 입양해 집으로 데려가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라고 시청 직원이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답변했다.

#### На Сахалине в Углегорске женщина оставила в мэрии коробку с выводком щенков

На Сахалине в администрации Углегорска произошел скандал. Незнавшая женщина проникла в здание и в одном из кабинетов оставила коробку с 12 щенками, сообщает astv.ru. Свой поступок местная жительница объяснила тем, что в районе давно обещали построить приют, но так и не построили. Кроме того, сахалинка посчитала, что за жизнь бездомных собак теперь ответственны чиновники. В мэрии, конечно, удивились, но коробку приняли.

- В администрацию наглым образом подкинули 12 щенят. Одна из жительниц взяла на себя 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 за этих животных, но решила её переложить на муниципалитет, в полномочия которого не входит их содержание, - сообщили в соцсетях свой ответ сотрудники мэрии. - Не беспокойтесь, щенки не брошены, отмыты и накормлены. Нашими волонтерами осуществляется круглосуточный уход. Наряду с этим призываем неравнодушных граждан взять к себе домой верного друга.

#### 유즈노사할린스크, 봄 꽃 디자인 전시회 개최

주미술박물관에서는 지난 3월 30일 '봄은 푸른 눈을 갖고 있다...'라는 제목으로 꽃꽃이 전시회가 열렸다. 이 행사는 미술관과 "사할린의 꽃"이라는 사회단체에서 주관한다.

미술관에 따르면, 전시회 구성물은 버드나무, 자작나무, 툼플, 수선화, 난초, 모란 등 사할린 지역에서 막 개화하기 시작한 식물들을 기반으로 한 작품을 전시한다고 밝혔다.

"가느다란 줄기, 잎과 꽃잎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녹색 섬 사할린의 강인함과 아름다움을 보여준다. 투명한 유리, 소박한 세라믹 및 금속 화병은 사할린 식물의 힘과 섬세함을 보완한다."라고 사할린 지역 미술관에서 전했다.

이 프로젝트의 리더인 알렉산드라 쿠드랴쇼와는 러시아 플로리스트 길드 회원으로 모스크바에서 열린 국제 대회 수상자이며, "역사 및 문화 기념물 보존" 부문에서 사할린주 향토박물관 재건 프로젝트 시행으로 러시아 연방 국가상 은메달을 수상했고, 사할린 지역 주지사상 예술 및 문화 부문에서도 수상한 바 있다.

전시회는 3월 31일부터 4월 2일까지 진행된다.

#### Весеннюю выставку флористического дизайна открыли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Выставка флористического дизайна "А у весны зелёные глаза..." открылась в областном художественном музее 30 марта. Её организаторы - музей и региональная общественная организация "Цветы Сахалина".

Как сообщают в художественном музее, основой композиций стали растения, которые только начинают распускаться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ива, береза, верба, тюльпаны, нарциссы, орхидеи, пионы.

"Тонкие стебельки, листочки и лепестки показывают силу и красоту окружающего нас зеленого острова Сахалин. Достоинно дополняют мощь и изысканность сахалинских растений прозрачные стеклянные, рустикальные керамические и металлические вазы", - говорят в Сахалинском областном художественном музее.

(8면에 계속)

### 한국 교육과 사회에 관한 경시대회에 140여명 참가

사할린국립대 역사·어문·동양학 대학과(학장 임 엘비라) 사할린주한인협회(회장 오진하)가 공동으로 해마다 개최하는 한국에 관한 경시대회가 이번에 지난 24일(금) 본대학 대강당에서 진행되었다.

사할린의 여러 도시에서 온 학생들로부터 대회참가신청서가 접수되었는데 5-11학년 학생들을 위주로 이번 대회에는 유즈노사할린스크(동양김나지아, 제2김나지아, 제2리체이), 코르사코브(제2중학교), 돌린스크(청소년 창작회관), 오하(제7중학교)의 학생 140여명이 참가했다.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올해 처음으로 경시대회에 오하 학생들도 참가했다.

이번 경시대회의 주제는 한국의 교육과 사회였다.

답지에 대답한 후 참가자들은 한국 문화를 체험할 기회가 있었다. 이번에 주최측에서 진행하는 활동교실에서 임 엘비라 교수 비롯 한국어 교수와 대학생들 지도 아래 학생 140여명이 매듭 팔찌 만들기에 몰두했고 한지에서 그림을 그렸다. 이런 체험수업들은 유청소년들 사이에서 상당히 인기가 많다. 이번에도 예외가 아니었다.

활동교실에서 진행자와 학생들 모두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사할린국립대 학생 위로비오와 다리야) (이예식 기자 촬영)

### 태권도 선수 120여명, 사할린주한인협회 컵 경기에 출전

지난 25(토) '토르나도' 스포츠 클럽(회장 이 파벨)이 사할린주한인협회의 컵 페스티벌을 유즈노사할린스크시 한인문화센터에서 열었다. 120여명의 선수들이 참가하여 경쟁한 가운데 태권도 선수들은 겨루기 및 품새 공연을 펼쳤다.

이날 막심 공(1번 중등학교), 소피아 김(16번 중등학교), 웨라 슈마크와(동양 김나지아), 바르바라 자구멘니코와(1번 김나지아), 폴리나 나우만(13번 중등학교), 알리나 티도와(32번 중등학교), 엘리자베타 쿠왈디나(한인 문화센터)가 훌륭한 기술을 보여주어 최고의 성적을 거두었다.

참가자들 사이에서는 유청소년들 팀 경쟁이 있었고, 주요 상품은 오호츠크에 마을의 "오스트로브"휴양센터 5만 루블리의 이용권이었다.



단체전에서는 1번 학교 대표팀(사범 게르만 최)가 우승을 차지했고 2위는 한인문화센터 대표팀(사범 블라디미르 마트비엔코), 3위는 동양 김나지아 대표팀(사범 알렉산드르 최)가 차지했다고 '토르나도' 클럽에서 전했다.

(본사 기자)

(사진: '토르나도'클럽 제공)

### 사할린 국립대 학생들이 부산에 왔다!

올해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사할린 국립 대학의 학생들은 전 세계 여러 지역으로 교환학생으로 나가기 시작했다. 나도 그 학생들 중 한 명이고 동양학 3학년에 재학중이며 이름은 엘리자베타이다. 이제 한 학기 동안 부산외국어대학에서 공부를 한다. 그래서 부산에서의 나의 첫 소감을 말하고 싶다.



예상과 달리 한국으로의 여정은 그리 어렵지 않았다. 가는 길이 거의 이틀이나 걸렸고 피곤했지만 웃으며 기분 좋게 한국에 도착했다. 모든 것이 새롭고 무엇보다 봐야 할지 몰랐다. 러시아의 혹독한 겨울에 비해 너무 따뜻한 날씨와 도시의 건물들 그리고 자연속의 나무들까지 러시아와는 전혀 다른 모습들에 놀랐다. 그러나 서울 관광지를 구경할 시간이 없어서 아쉬웠지만 학업을 마치고 나서 서울을 방문하고 싶다. 그리고 지금은 부산을 탐구하며 도시의 특징, 사람들, 음식, 문화를 알아가고 있다. 부산은 정말 예쁜 도시다. 날씨

도 따뜻하고, 우리 대학이 있는 동네에는 예쁜 꽃들이 피어있고 카페와 맛있는 식당도 많이 있다. 한국 대학에서의 공부는 정말 재미있다. 우리 대학 학생들은 한국어와 문화 트랙에서 공부하며, 모든 과목을 한국어로 배운다. 고급 반에서 공부하지만 교수님들이 잘 설명해주시니까 공부도 어렵지 않다. 강의 시간표는 직접 만들 수 있어서 재미있고 새로운 것도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그리고 외국인들을 위한 동아리 활동이 다양하다. 댄스 동아리, 봉사 동아리 등 그 외 많은 동아리들이 있다. 학생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과 함

께 모여서 관심 분야를 같이 활동할 수 있다. 나에게는 외국인 학생들과 한국 학생들이 어우러져 서로의 문화를 배울 수 있는 합창단 동아리가 가장 재미있다. 언어장벽 때문에 대화하는 것이 가끔 어렵지만 이해가 안 되면 다른 학생들이 항상 도와준다. 앞으로 남은 3개월 동안 더 공부할 수 있어서 더 많은 기대가 된다. 중간고사 시작하기 전까지 벚꽃 축제에도 참석하고, 우리 대학의 다양한 강의를 듣고, 부산을 맘껏 즐기고 싶다.

사할린국립대 야코모바 엘리자베타

### 사할린한국교육원 3년의 성찰: 눈물샘 사할린에 웃음과 신명을~

전 사할린한국교육원 원장 이병일

#### (전호의 계속)

한글학교와 한국어채택교 선생님·학생, 아리랑무용단이 리더가 되어 한식만들기, 한글쓰기, 민속춤, 민속놀이 코너를 운영하여 한국어와 문화에 대한 친밀감을 갖도록 했다. 학교에서 제2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과 채택 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이었다. 지방도시 10개교 학생 900여 명이 참여했고 전세버스를 빌려 포로나이스크와 마카로프를 향해 새벽에 출발한 일도 있었다. 캠프가 끝나고 많은 학생들이 다가와 사진을 찍자고 했고 자신들의 작품을 자랑했다. 갑작스러운 제안으로 시작했지만, 단절의 시대에 참관찮은 시도였다고 생각한다.

단절을 보완하는 또 하나의 시도는 하바로브스크한국교육원이 개최한 '한국어말하기 큰잔치'에 초대를 받아 사할린 아리랑무용단원을 모시고 참석한 일이었다. 무용단은 대회 축하의 의미로 무대에서 '도라지' 춤을, 나는 개량된 '봉산탈춤'을 선보였다. 하바로브스크 고려인 예술단체의 환대를 받았고 공연의 반응은 뜨거웠다. 무엇보다도 하바로브스크 아리랑센터에서 고려인과 사할린 한인의 뜨거운 포옹, '도라지' 민요와 춤을 화합하여 공연하는 장면, 밀양아리랑 민속춤을 함께 추는 흥겨운 수업 장면은 마치 다큐멘터리의 한 장면 같았다. 문득 한국어를 제1외국어로 가르치는 블라디보스톡 24학교 교장 선생님의 제안, 즉 "지금 한국과 교류가 어려우니, 블라디보스톡·사할린·하바로브스크의 한국어 채택교과리 공동수업이나 대면 교류 같은 것을 해보자."는 말씀이 생각났다. 연해주 고려인과 사할린 한인 동포의 교류가 우선 현실화 된 것이 아닌가 생각했다. 내가 이런 역사적인 자리에서 밀양아리랑을 가르쳐 드리다니, 참 믿을 수 없는 장면이고 보람된 시간이었다.

사실 교사연수에서 배운 봉산탈춤 기억을 살려 처음 유치원 행사에서 모험적으로 초연한 적이 있다. 이 영상을 본 사할린국립대 교수님의 제안으로, 한국의 탈 만들기 행사에서 대학생들과 함께 공연하고, 행사 참가자들에게 가르쳐 함께 탈춤을 추게 되었다. 사할린에 처음으로 탈춤을 소개한 격이다. 그런 일이 있은 후, 2022년 11월 30일, 한국의 탈춤이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재에 등재 결정되어 남달리 보람이 컸다. 때마침 사할린 우리 말방송의 <한국의 상징> 코너에 '한국의 탈춤'을 소개하였다. 참고로 이 코너에서 2020년 10월부터 '한글', '추석', '아리랑', '설', '정월대보름', '한식(절기)', '한식(KFOOD)', '온돌', '직지·금속활자·한지', '이순신·난중일기·거북선', '독도' 등 한국의 상징을 소개했다.

#### • 모국의 공무원으로서 사할린 동포들에게 드리는 기억의 노래 선물

국내출장 중에 KBS라디오 한민족방송 <보고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에 나가 사할린 동포 소식을 전하는 자리에서 교육원 수강생 사할린 동포 2세 김경순님의 개사곡 두곡을 불렀다. 부모와 어린 큰오빠의 이별과 50년 만의 만남 또 이별과 사별의 한맺힌 사연을 담은 가사였다. 그런데 프로그램의 박OO MC가 당신이 운영하는 스튜디오에서 사할린에 의미있는 노래들을 녹음하여 사할린 동포들에게 선물로 드리자는 제안을 하셔서 녹음을 했고 음악 CD를 만들어 주셨다. 가족사 사연을 개사하신 김경순님은 2022년 제 24회 세계한민족수기대회 성인 부문에서 부모님과 큰오빠의 한맺힌 사연을 글로 써서 제출하여 대상을 받았다. 이것도 사할린 한인사회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언뜻 글쓰기가 치유의 시작인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사할린의 노래

#### 3. 성찰과 소망

교육원장 3년은 비록 팬데믹과 제재로 인해 고립과 먼 우회로 값비싼 교류 왕래의 비용을 치렀지만, 그 상황에서 살아내기 위한 가치있는 역할, 재미와 신명을 주는 모험적 사업의 시도는 스틸과 신기한 뿌듯함의 연속이었다. 무덤 같은 홀로살이의 고뇌를 날리는 여러 시도들이 동포들과 학생들의 도움으로 잘 실현되었다 생각한다.

이제 떠나는 즈음에 동포 분들께 소망하는 것이 있어 적어 본다. 한국어든 러시아어든 글쓰기를 계속하시라는 것이다. 가정에서 한인사회에서 그런 기록들이 대대로 전달되어야 고통스럽던 역사가 치유되고 생명과 힘을 얻을 것이라 본다. 중국 동포들은 KBS한민족 방송에 편지 사연들을 보내고 많이 방송된다. 하지만 사할린 1세대 분들이 연로하고 많이 영주귀국하신 후 사할린에서 KBS에 편지를 보내는 분들이 없다. 2022년에 사할린 거주자 두 분의 편지가 소개된 정도이다. 쓴 글을 수정하고 번역하여 방송에 자주 소개되었으면 한다. 그러면 그 다음 세대들이 조상들의 역사를 기억하고 모국과 모국어와의 연결을 쉽게 할 수 있으며 미국땅에서도 힘을 발휘할 기회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출처: 한국 교육부 재외교육지원센터, 한국교육진흥협회) (끝)

#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прошла олимпиада по образованию и обществознанию Кореи

24 марта в СахГУ прошла ежегодная олимпиада по культуре Кореи. В качестве организатора выступила кафедра восточной филологии института филологии, истории и востоковедения Сахалин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при поддержке региональной обще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Поступили свыше 141 заявок от школьников из разных уголков Сахалина. Интерес к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е постоянно растет, каждый год количество участников увеличивается.

В олимпиаде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школьники из Восточной гимназии, школы № 2 г. Корсакова, гимназии № 2, лицея № 2, дома творчества г. Долинск.

В этом году впервые поучаствовали школьники из Охи. Темой выступили образование и общество Кореи. Олимпиада традиционно прошла в два этапа: письменная часть и мастер-класс. Темой мастер-класса для учеников 5-7 классов была традиционная корейская бумага ханджи и рисование значка. Ученики 8-11 классов же плели браслет в корейской технике мэдып, которая широко используется в корейских украшениях. И школьники и их учителя замечательно провели время.

**Воробьева Дарья**  
Фото: Ли Е Сик



## Свыше 120 тхэквондистов сразились за Кубок РОО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Фестиваль спортклуба «Торнадо» на Кубок РОО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прошёл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За награды соревнований сразились более 120 спортсменов. Тхэквондисты провели поединки в спарринге и выступили в пхумсе — боях с тенью,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министерства спор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 итогам боёв лучшие результаты показали Максим Гон (СОШ № 1), София Ким (СОШ № 16), Вера Шмакова (Восточная гимназия), Варвара Загуменникова (Гимназия № 1), Полина Науман (СОШ № 13), Алина Титова (СОШ № 32), и Елизавета Кувалдина (Корейский культурный центр).

Среди кадетов прошли командные соревнования ТК5, главным призом был сертификат на 50 000 руб на базу отдыха "Остров" в селе Охотское, сообщили в клубе "Торнадо".

По результатам командных соревнований



среди кадетов победу одержал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СОШ № 1 (тренер Герман Цой). На второй ступени пьедестала расположились представители Корейского культурного центра (тренер Владимир Матвиенко). Тройку лидеров замкнула команда Восточной гимназии (тренер Александр Цой).

Фото предоставлено клубом "Торнадо"

## Студенты Сахалин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в Пусане!

Этой весной, с началом нового семестра, студенты Сахалин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отправились на учёбу в разные уголки мира. Одной из этих студенток стала я, студентка 3-го курса направления "Востоковедение и африканистика". Теперь, в течение целого семестра я смогу обучаться в Пусанском университете иностранных языков.

Вопреки ожиданиям, поездка в Корею оказалась не такой трудной. Хотя я и устала за время поездки почти в двое суток, я прибыла в Корею с улыбкой на лице и с поднятым настроением. Всё было новым, и я даже не знала, на что смотреть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Удивительными казались люди, неожиданно тёплая, после суровой русской зимы, сеульская погода, дома, растения и множество других вещей. К сожалению, времени посмотреть достопримечательности столицы у меня не было, я надеюсь, что посетю Сеул после окончания учёбы. А сейчас я тщательно исследую Пусан, знакомлюсь с его особенностями, людьми, едой и бытом.

Пусан — это замечательный город! Тут очень тёплая погода, что до сих пор немного непривычно для меня. В районе наше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много растений, вкусных кафе, столовых и ресторанов, а с гор иногда доносится пение монахов из храма Помоса.



Учёба в университете очень интересная! Студенты наше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учатся на треке "Корейский язык и культура", поэтому все предметы преподаются на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Хотя я учусь в группах высокого уровня, учёба совсем не сложная, так как преподаватели всё хорошо объясняют. Расписание здесь каждый студент составляет сам, поэтому учиться не скучно, и есть возможность узнать много нового.

Помимо основных занятий, для иностранцев проводят много разных мероприятий. Есть танцевальные кружки, волонтерство, а также множество других кружков, где студенты могут заниматься

тем, что им интересно, объединяясь с людьми из разных стран. Самым интересным мне показался кружок хора, где все иностранные студенты вместе с корейскими студентами могут петь вместе, параллельно изучая культуру друг друга.

Впереди у меня еще три месяца, и я с воодушевлением жду дальнейшую учёбу. Пока не наступили промежуточные экзамены и времени у меня много, я собираюсь посетить фестиваль цветения вишни, послушать различные лекции о культуре, туризме и международных отношениях в нашем университете, и в целом продолжать исследовать Пусан и Корею.

**Якимова Елизавета,**  
студентка СахГУ

## ПРИГЛАШАЕМ!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в рамках проекта «Встречи на Сахалине: о жизни, творчестве, душе» приглашает **3 апреля 2023 г. в 18.00** на творческий вечер-встречу «И не опаздывай жить!!!»

Герой встречи — известный сахалинский бард ХАН СЕРГЕЙ (Хан Ген Чер)

Место встречи: гостиница Гагарин, конференц-зал, 9 этаж

Встреча проводится при поддержке ГК «Гагарин»



**Хан Ген Чер (Сергей Михайлович, 1958 г.р.)**

Родился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Выпускник Хабаровского института инженеров железнодорожного транспорта, работал на рабочих и руководящих должностях на Сахалинской железной дороге, в энергетике, в Объединении «Сахалинуголь».

Известный дальневосточный автор-исполнитель, лауреат и дипломант областных и дальневосточных музыкальных фестивалей. Создатель и руководитель Сахалинской лаборатории авторской песни. 1-ый президент «Сахалинского корейского клуба»

## Уважаемые читатели!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оказывает услуги по переводу документов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ождени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браке и т.д.) с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на корейский для подачи Заявления на ПМЖ. Обращаться в редакцию (Чехова, 37) с 10.00 до 14.00, пятница с 10.00 до 12.00.

Конт. телефон: 43-59-80, 43-72-94.

## Забота о престарелых родителях уже не святость, а обуза

Сеул, 27 марта – ИА РУСКОР

Молодые южнокорейцы больше не считают, что они должны нести 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 за заботу о своих престарелых родителях, и вместо этого считают, что это должно быть обязанностью государства. С возрастом в Южной Кореи число семей, в которых их члены находятся в больнице, растет, а также увеличивается охват медицинским страхованием, что меняет отношение к сыновнему долгу и семье.

В новом опросе, проведенном институтом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и социальных вопросов Кореи среди 7 865 домохозяйств, только 21,39 процента респондентов заявили, что дети несу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 за поддержку своих пожилых родителей, в то время как почти половина или 49,14 процента считают, что пожилые люди должны обеспечивать себя сами. Когда опрос был впервые проведен в 2007 году, 52,6 процента все еще считали, что дети обязаны поддерживать сво-

их престарелых родителей. Но к 2013 году доля сократилась до 35,45 процента, и с тех пор она сокращается.

Отношение к семье также значительно изменилось. Еще один пример проверки — должны ли матери оставаться дома и заботиться о своих детях. В 2007 году 64,7 процента считали, что женщины должны оставаться дома, но в 2022 году этот показатель снизился до 39,6 процента, в то время как доля несогласных почти удвоилась с 17,6 процента до 31,22 процента.

С возрастом в Южной Кореи изменились и основные причины внутренних конфликтов. Пятнадцать лет назад 28,2 процента респондентов называли финансовые трудности главной причиной споров. Но в прошлом году 50,44 процента назвали проблемы со здоровьем членов семьи главной причиной споров. Среднее количество дней в году, которые один член семьи проводил в больнице, выросло с 1,8 дней в 2006 году до 16,28

дней в 2021 году, и южнокорейцы все больше верят, чт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е медицинское страхование должно вмешаться, увеличившись с 53,9 процента до 72,35 процента за этот период.

Институт также отметил, что все больше южнокорейцев поддерживают идею всеобщего благосостояния, а не только для бедных семей. Но соотношение сторонников и противников варьировалось в зависимости от уровня дохода. Около 43,83 процента домохозяйств с низким доходом поддержали выборочное социальное обеспечение, в то время как точно такая же доля домохозяйств со средним доходом поддержали всеобщий охват.

Ли Бон Чжу из Сеульского националь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сказал: «Все больше и больше людей теперь считают, что государство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 за заботу о пожилых людях. И очевидно, что разрыв в доходах между богатыми и бедными увеличивается».

#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 Министры обороны РК и Вьетнама обсудили вопросы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28 марта в Сеуле состоялась встреча министров обороны РК и Вьетнама Ли Чжон Соп и Фан Ван Зянга. Обсуждались вопросы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в сферах обороны и оборонно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Была достигнута договорённость о создании в апреле регулярной консультационной площадки с участием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ВМС двух стран в целях укрепления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в сфере безопасности на море. В 2017-2018 годах РК передала Вьетнаму два сторожевых корабля.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идёт подготовка к передаче ещё одного корабля. Министры договорились развивать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в сфере обороны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высоким уровнем двусторонних отношений и изменением ситуации в сфере безопасности. Они согласовали поправки в меморандум о взаимопонимании по военному сотрудничеству, подписанный в 2010 году. Ли Чжон Соп пригласил Фан Ван Зянга на Международную выставку аэрокосмических и обор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ADEX-2023, которая состоится в РК в октябре этого года.

## Ожидаемая инфляция в РК сократилась до 3,9%

Впервые с начала текущего года в РК сократилась ожидаемая инфляция, то есть, прогноз роста цен в течение года. Она составила 3,9%, что на 0,1% меньше, чем в прошлом месяце. Как отметили в Банке Кореи, цены на обработанные пищевые продукты, питание вне дома и проезд в общественном транспорте повысились. Однако общий уровень потребительских цен снизился на фоне сокращения мировых цен на нефть. Во втором полугодии ожидается дальнейшее снижение ожидаемой инфляции. Уровень восприятия потребительских цен, то есть, их рост, ощущаемый потребителями, понизился на 0,1%, составив 5,1%. Индекс потребительских настроений составил 92 пункта, повысившись на 1,8 пункта по сравнению с февралём. Показатель ниже ста пунктов указывает на преобладание пессимистических настроений над оптимистическими.

## Срок самоизоляции для пациентов с COVID-19 сократится

Начиная с мая этого года, срок обязательной самоизоляции для пациентов с COVID-19 будет сокращён с нынешних семи до пяти дней. Об этом сообщил премьер-министр РК Хан Док Су, выступая 29 марта на заседании центрального штаба по противодействию чрезвычайным ситуациям и катастрофам. «Долгая борьба с COVID-19, которая длилась более трёх лет, близится к концу. Это был сложный процесс, но, благодаря участию людей, терпению и самоотверженности медицинских работников, мы смогли добиться успеха в борьбе с болезнью», - подчеркнул Хан Док Су. Если стабилизация эпидемической ситуации продолжится после сокращения срока самоизоляции, уровень опасности COVID-19 будет снижен с нынешнего второго до четвёртого. Ко второму уровню относятся также такие опасные заболевания как ветряная оспа и корь. Четвёртый уровень – самый низкий. К нему, в частности, относится сезонный грипп, и он не предусматривает ни ношение масок, ни самоизоляцию.

## Второй сезон сериала «Триумф» третью неделю в топе Netflix

Вот уже третью неделю подряд южнокорейский сериал «Триумф» держится на первом месте в глобальном чарте популярности неанглоязычных телесериалов, доступных на стриминговой платформе Netflix. С 20 по 26 марта время просмотра этого сериала составило 48 млн 350 тыс. часов, что является лучшим показателем среди неанглоязычных телевизионных контентов. Главная героиня сериала Мун Дон Ын - жертва школьного насилия, решившая отомстить своим обидчикам. Первый сезон знакомит со школьными годами главной героини, её подготовкой к будущей мести. Девушка вынуждена оставить учёбу в школе из-за издевательств со стороны одноклассников. Проходят долгие годы. Мун Дон Ын устраивается на работу в школу, где обучается дочь одной из её обидчиц. Теперь это уже не та беззащитная девушка, которая не может постоять за себя. Мун Дон Ын готовится реализовать коварный план мести, о чём рассказывается во втором сезоне.

## РК усиливает борьбу с нарушениями авторских прав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К создаёт орган, который будет работать над решением проблемы незаконного распространения корейского культурного контента. Как сообщили 28 марта в министерстве культуры, спорта и туризма, данный орган формируется по распоряжению президента Юн Сок Ёля при участии министерства науки и информационно-коммуник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МИД, министерства юстиции, парламентского комитета по вопросам связи, телекоммуникаций и научного прогнозирования, а также полицейского управления. Новый орган займётся расследованием случаев нарушения авторских прав корейских компаний-производителей и распространителей культурного контента, поиском и блокированием интернет-площадок, где незаконно размещают контент. В июне данный орган должен представить пакет мер по искоренению незаконного распространения контента. (RKI)

## Южная Корея выразила "глубокое сожаление" Японии из-за учебников истории

Начавшееся было сближение Сеула и Токио оказалось под угрозой, так как Япония обнародовала содержание новых учебников истории. В них по спорным и чувствительным для корейцев вопросам содержится выгодная исключительно Японии позиция, что вызвало негодование у корейцев. МИД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ызвал представителя посольства Японии, которому было выражено глубокое сожаление в связи с произошедшим.

Все это произошло на фоне подписанных в ходе состоявшегося 16-17 марта в Токио южнокорейско-японского саммита, где президент РК Юн Сок Ёль и премьер-министр Фумио Кисида договорились об улучшении двусторонних отношений. При этом Сеул пошел на значительные уступки, предложив косвенную схему выплаты компенсаций корейским рабочим, которых принудительно мобилизовали на предприятия Японии. Компенсации будут выплачивать не японские фирмы, против чего они и правительство Японии категорически возражали, а корейские компании, который получили дотации от Токио при выплате послевоенных репараций. Кроме того, японский премьер напрямую лично отказался извиняться за преступления прошлого, сказав лишь, что поддерживает заявле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в 1998 году, где были выражены глубокие сожаления от имени Японии. Данные договоренности, которы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и президент Южной Кореи старательно рекламировали как "дипломатический прорыв", встретили негативную реакцию в стране из-за серьезных односторонних уступок.

Теперь же выясняется, что критики оказались правы, так как Япония вновь продемонстрировала, что просто "съела" уступки Кореи, а сама придерживается прежней позиции. Для президента РК Юн Сок Ёля, который убеждал сограждан в необходимости ком-

промисса, называл свои шаги "направленными в будущее" и "выгодными Сеулу", это стало сильным ударом по имиджу. "Показательно, что Япония никак не изменила свой подход, несмотря на большие уступки, на которые пошел Сеул... Это действительно очень большое разочарование с точки зрения корейцев, которые безусловно надеялись на ответные шаги со стороны Японии", - цитирует издание The Korea Times слова профессора университета Сон-гонхва Ян Ги Хо.

В обществе и СМИ вновь пошла волна критики в отношении Японии и ее преступлений, а также официальной оценки Токио исторических фактов. Во вторник в МИД РК был вызван советник-посланник посольства Японии, которому представитель МИД выразил глубокое сожаление в связи с содержанием учебников истории. "Япония должна принять то, что она совершила в прошлом, и в более ответственной манере воспитывать свое молодое поколение... Японии необходимо сдержать свои обещания по части поддержки предыдущих извинений", - заявил представитель МИД РК журналистам.

Эксперты же, тем не менее, отмечают, что правительство Южной Кореи, которое ради развития связей с США и укрепления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с Японией пошло на уступки, вряд ли как-то будет менять договоренности, не говоря уже об отказе от них. "Прояпонская политика правительства Юна, которая активно поддерживается Вашингтоном, не поменяется. Скорее всего просто попытаются спустить на тормозах этот неприятный инцидент, надеясь, что публика быстро его забудет, тогда как подписанные с Токио договоренности останутся в силе", - пояснил "Российской газете" местный политолог на условиях анонимности.

Олег Кирьянов (Сеул, РГ)

## Первый с 2020 года иностранец прибыл в Северную Корею

Новый посол Китая в КНДР приехал 27 марта в Северную Корею, став, таким образом, первым иностранцем, попавшим в страну за три года жесточайших ограничений, призванных сдержать распространения коронавируса. Об этом сообщил японский телеканал NHK.

Согласно сообщению NHK, 27 марта новый посол Китайской Народной Республики в КНДР Ван Ячжун пересек мост, соединяющий китайский город Дандун и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й Синийджу.

Отметим, что предыдущий посол КНР в Пхеньяне покинул КНДР еще в декабре 2021 года, но на замену ему никто не приехал.

С конца января 2020 года Северная Корея ввела очень строгие ограничения в связи с пандемией COVID-19. Последними иностранцами, которые смогли въехать в Страну чучхе, были два российских дипломата, которых в виде исключения запустили в КНДР в марте 2020-го. Им пришлось провести в карантине около месяца, прежде чем они смогли поехать в посольство. С тех пор выехать из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было крайне сложно, а попасть просто невозможно.

Несколько месяцев назад КНДР возобновила же-

лезнодорожное сообщение с Китаем и Россией, но въезд в страну людей, включая граждан КНДР, был запрещен. Получается, что новый посол Китая стал первым, кто попал в Северную Корею после трех лет ограничений.

Источник "Российской газеты" подтвердил эту информацию, добавив некоторые детали. "Действительно, это так. Насколько мне известно, всего заехало 10 человек, включая посла. Все они - китайские дипломаты, прибывшие для работы в посольстве КНР. Сейчас они находятся на карантине в Синийджу, где пробудут одну неделю".

Для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это знаковое решение. Оно означает, что КНДР начала открывать границы для въезда людей. В этой связи можно ожидать, что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в КНДР смогут заехать и россияне, чтобы провести ротацию персонала в посольстве РФ, а также в СП "Расонконтранс". Если это действительно произойдет, то с учетом ситуации в КНДР заезжать они скорее всего будут по железной дороге, через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й город Расон, что на северо-востоке КНДР, недалеко от сухопутной границы с Россией.

Олег Кирьянов (Сеул, РГ)

## Проснулся аппетит к олимпийским победам

Сеул, 28 марта – ИА РУСКОР

Северная Корея провела общее собрание своего Олимпийского комитета, чтобы обсудить планы на этот год, пообещав выиграть больше медалей на международных соревнованиях после того, как страна была восстановлена для участия в Олимпийских играх, сообщили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е СМИ Севера.

Официальное Центральное информационное агентство Кореи (ЦТАК) сообщило, что высокопоставленные чиновники присутствовали на встрече, чтобы обсудить способы завоевания большего количества медалей на соревнованиях мирового масштаба и решения антидопинговых вопросов. В конце минувшего года Северная Корея освободилась от запрета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олимпийского комитета на участие в Олимпийских играх.

Северная Корея была отстранена от Олимпийских игр до конца 2022 года за бойкот летних Олимпийских игр в Токио 2021 года. Пхеньян может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 Азиатских играх, которые пройдут в сентябре этого года в Ханчжоу, Китай, а также в Олимпийских играх, намеченных на июль 2024 года в Париже. Северная Корея также активизирует антидопинговые дискуссии, скорее всего, чтобы избежать дальнейших препятствий для участия в глобальных спортивных мероприятиях. В октябре 2021 года Всемирное антидопинговое агентство (WADA) оштрафовало Пхеньян за несоблюдение глобальных антидопинговых стандартов.

## Чи Мин из BTS возглавил чарт Spotify Daily Top Song Global

Заглавный трек сольного дебютного альбома Face Чи Мина из группы BTS под названием Like Crazy поднялся на первую строчку чарта Spotify Daily Top Song Global.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о 28 марта продюсерское агентство Big Hit Music. 24 марта, в день начала продаж альбома, песня заняла вторую позицию в рейтинге, 25 марта опустилась на третье место, а 26 марта возглавила рейтинг. Между тем, альбом Face занял первое место в еженедельном рейтинге японского чарта Oricon с объемом продаж 225 тысяч копий

KBS World

## 30 семей на Кунашире отпраздновали новоселье

Квартиры в трехэтажном доме на улице Океанской в Южно-Курильске островитяне получили бесплатно в рамках программы по переселению из аварийного жилья. Монолитный конструктив способен выдержать подземные толчки силой до 9 баллов. Это имеет особое значение для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ов, расположенных в сейсмоопасной зоне. Современная технология использована и для фасада. Усиленное покрытие будет защищать дом от сильных ветров на Кунашире.

Все квартиры сданы «под ключ». В них установлена сантехника, электрические плиты и водонагреватели. В каждой квартире предусмотрена остекленная лоджия.

– Мой муж родился здесь, на Кунашире, я сама приехала позже на сайровую путину, работала на рыбокомбинате, и осталась здесь. Наша семья прожила более пятидесяти лет в старом доме и вот у нас новоселье. Квартира большая и просторная – 73 квадратных метра. И сейчас есть, куда приезжать к нам в гости с Сахалина нашему младшему сыну, у него четверо детей. Благодарим строителей и власти за новое жилье, – поделилась жительница Южно-Курильска Людмила Варфоломеева.

– Я здесь с 1977 года живу и работаю. Родители привезли меня на улицу Океанскую, и вот опять я заселяюсь на эту улицу, но уже в новостройку. Очень счастлива, хочется жить, созидать. Наш дом сдан в ускоренном режиме – должны были заезжать в 2025 году, но ключи получили уже сейчас, чему очень рады, – рассказала Наталья Лебедева.

С начала года в районе заселили 2 новых дома на Шикотане – на 30 и 28 семей. В этом году планируется сдать семь многоквартирных 3-этажных домов на Шикотане в селах Малокурильское и Крабовозовское и два дома на Кунашире в Южно-Курильске.

Напомним, в прошлом году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получила самый большой объем финансовой поддержки от Фонда развития территорий. Средства направлены на расселение аварийного жилья уже в рамках новой программы.

– Нам одобрено 11 миллиардов рублей, из них 10,4 миллиарда мы уже получили на счета, 600 миллионов получим в этом году. Эти деньги уже распределены на расселение аварийного жилья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рамках нового этапа этой программы по итогам 2022 года мы расселили 91,5 тысячи квадратных метров аварийного жилья. А если считать в общем, с 2021 по 2022 годы эта цифра составляет 175 тысяч квадратных метров. Единичные регионы в России приближаются к таким показателям, – отметил министр стро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лексей Колеватых.

В прошлом году новоселье отметили 4016 островитян. Большинство переехали в новые дома, несколькими десятками муниципалитеты приобрели квартиры на вторичном рынке. Кроме того, 1240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получили выкупную стоимость за свою аварийную квартиру.

С начала 2023 года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жилищные условия улучшили 630 жителей. Всего в этом году планируется расселить 117,7 тысячи квадратных метров и предоставить новое жильё 5 тысячам островитян. До конца 2026 года необходимо расселить почти 720 тысяч квадратных метров аварийного жилья, в котором проживают 32,4 тысячи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 В Смирныховском районе в этом году отремонтируют более 50 подъездов

Ремонт запланирован в 50 подъездах муниципалитета, в остальных проведут косметические работы. Об этом рассказала руководитель управляющей компании губернатору Валерию Лимаренко, который посещает Смирныховский район с рабочей поездкой.

– Проходит год и где-то появляются мелкие недочеты, где-то поручни поцарапаны, штукатурка отвалилась, вода протекает. Не надо ждать, когда наступит срок ремонта, а каждый год наводить порядок и содержать подъезд в чистоте. Там, где живут люди, должно быть комфортно и опрятно. Мы выделяем 50-процентную субсидию на эти работы, ждем от вас результата, – отмети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о словам руководителя управляющей компании, в их ведении 125 домов и 294 подъезда.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ремонт проведут в 50 общественных помещениях, нуждающихся в этом. Во всех остальных проведут мелкие косметические работы, чтобы исправить небольшие недочеты. Кроме того, управляющая компания планирует привлечь ребят из местной школы искусств, чтобы они украсили подъезды. Такой опыт уже есть, жители одного из домов на улице Чехова разрисовали стены общественного пространства мультгероями.

Напомним, какие виды работ будут выполнены в подъезде, зависит от самих граждан. Чем активнее они будут в этом вопросе, тем быстрее их пространство в доме преобразится и станет уютнее и комфортнее. Для этого жильцам необходимо обратиться в свою управляющую компанию. Окончательное решение о предстоящих работах принимается на общем собрании собственников. Чтобы охватить ремонт как можно больше подъездов, к работе подключатся волонтеры «Единой России». Они помогут включить в списки общественные помещения многоквартирных

домов, которые не были поданы местными главами и управляющими компаниями, но нуждаются в благоустройстве. Такую задачу поставил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Также сбором наказов и просьб – в том числе по ремонту дворов и подъездов – занимаются волонтеры проекта «Забота. Защита. Уважение». В рамках обходов активисты помогают жителям области в решении самого широкого спектра вопросов.

Кроме того, в этом году в Смирных планируется провести текущий ямочный ремонт в пяти дворах и капитальный ремонт двора на улице Западной.

## Почти 2,5 миллиона рублей получила школа в Смирных на реализацию творческих задумок учеников

За счет средств регион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Молодежный бюджет» в образовательном учреждении создадут радиостудию, а также преобразят школьный двор. О деталях реализации идей воспитанники образовательного учреждения доложили губернатору Валерию Лимаренко, который 28 марта посетил городской округ с рабочим визитом.

– Наша задача – воспитать умных и творческих людей, дать ребятам все инструменты для самореализации. От этого зависит не только будущее учеников, но и развитие всего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Молодежный бюджет» позволяет выявить самые перспективные идеи, дает юношам и девушкам возможность воплотить их в жизнь. Здорово, что воспитанникам смирныховской школы удалось добиться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воих проектов. Не сомневаюсь, что они будут реализованы на самом высоком уровне, – отметил глава региона.

В рамках проекта «Ландшафтный дизайн школьного двора» территорию учреждения украсят фигурами медведя, лебедей и оленей. На их приобретение выделили почти миллион рублей.

Еще 1,5 миллиона будет направлено на создание радиостудии. Денежные средства пойдут на приобретение и установку необходимого оборудования. Радиостудия станет важным дополнением к уже работающему в школе медиацентру.

– Проект школьного радио предложил наш 116 класс. Мы победили, и теперь в нашем медиацентре появится направление «Радиовещание». Это очень здорово, потому что мы сможем пробовать себя в новых форматах, будем еще больше уделять внимание голосу и написанию текстов, – рассказала главе региона ученица Елизавета.

– Наши ребята учатся снимать кино, делать репортажи, писать журналистские очерки. У нас работает школьное телевидение. Самое главное достижение – в прошлом году мы заняли первое место в тематическом конкурсе. Кроме того, одна из наших воспитанниц поступила на журфак. Радиостудия действительно очень важна для ребят. Не сомневаюсь, она сыграет огромную роль в профориентации и позволит нашим ученикам освоить новые для себя направления, – подчеркнула директор школы Галина Пушкель.

Кроме того, в проекте «Молодежный бюджет» принимают участие другие школы городского округа. Так, в селе Буюклы планируется благоустройство пришкольной территории. В школе села Онор выполнят обустройство школьной столовой – приобретут кухонное оборудование, мебель, посуду и специальную одежду. В образовательном учреждении села Победино обновят пришкольную территорию, сменят дизайн школьного двора и благоустроят спортивный стадион. В школе села Первомайск планируется создание центра детских инициатив, для которого приобретут мебель, световое и звуковое оборудование, фото и видеоаппаратуру, телевизор, компьютер, магнитно-меловую доску, настольные игры и мобильную перегородку.

Отметим, в рамках проекта «Молодежный бюджет» в школах региона в 2023 году появятся зоны рекреации, тренажерные залы и сенсорные комнаты. Будут отремонтированы спортзалы и холлы, обновлены гардеробы и столовые, модернизированы специализированные классы. На эти цели в областном бюджете предусмотрено финансирование в размере 320 миллионов рублей. Всего за счет средств региональной казны реализуют 142 идеи.

Проект «Молодежный бюджет» реализуется под патронатом регионального министерства финансов. За несколько лет на островах реализовано свыше 650 идей старшеклассников. Финансирование из бюджета региона составило 1,6 миллиарда рублей.

## Островной регион опережающими темпами воплощает в жизнь проект кампуса Сахалинского госуниверситета «СахалинТех»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ринял участие в заседании рабочей группы Министерства науки и высшего образования РФ по вопросам формирования и реализации федер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по созданию кампусов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высшего образования в рамках нацпроекта «Наука и университеты». Мероприятие провел руководитель ведомства Валерий Фальков.

Сейчас в стране идет реализация 17 проектов кампусов мирового уровня. Оценивая работу субъектов Федерации по этому направлению, министр отдельно остановился н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стровной регион уже

получил положительное заключение Главгосэкспертизы на первый объект – студенческий городок на 1500 мест.

– На этой неделе ожидается положительное заключение по второму объекту – научно-образовательному комплексу. Это отличный результат. Валерий Игоревич, поздравляю вас и вашу команду, так держать! – отметил министр науки и высшего образования РФ.

Кампус «СахалинТех» станет новым научным, деловым и культурным центром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точкой притяжения талантливой молодежи. В состав кампуса войдут студенческий городок на 1500 человек и научно-образовательный комплекс. Первый объект будет состоять из трех соединенных между собой девятиэтажных зданий. Каждая жилая комната в них рассчитана на двух человек. Первый этап строительных работ – снос старых зданий на площадке – недавно был завершён. Второй объект – научно-образовательный комплекс – возведут на месте бывшего Дома офицеров. Научно-образовательный комплекс будет включать в себя учебный корпус, научно-лабораторный блок с технопарком, библиотеку, зал собраний, общественно-деловые пространства и даже оранжерею.

– Кампус «СахалинТех» – это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новые возможности для островной молодежи. Реализация проекта приведет к глубоким изменениям в образовательной и кадровой политике, 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ой работе наше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Фактически мы создаем новое высшее учебное заведение, отвечающее мировым стандартам. В нем сахалинцы и курильчане будут получать современное образование, не покидая область. Обновленный вуз будет готовить кадры по заказам отечественных компаний, например, ведущих добычу нефти и газа на шельфе Сахалина. Тако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позволит обеспечить выпускников перспективными рабочими местами, – сказа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роект кампуса Сахалин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СахалинТех» стал участником федер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по созданию в России сети кампусов мирового уровня и получит финансирование из федерального бюджета.

## В обновленной школе единоборств будут тренироваться до 1000 спортсменов

В спортивной школе восточных видов единоборств развернута масштабная реконструкция. Ход работ накануне проинспектировал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в ходе объезда по Южно-Сахалинску. Сдать объект, важный для развития спорта на Сахалине, планируется к 1 сентября. В обновленном здании будут созданы комфортные условия для тренировок. Сейчас в школе в стесненных условиях занимаются только 470 сахалинцев в возрасте от 7 лет и старше. После реконструкции количество занимающихся вырастет в полтора-два раза.

У спортшколы появится современная трехэтажная пристройка – полезная площадь увеличится почти втрое. В распоряжении каратистов будут четыре спортивных зала и один тренажерный, а также учебные классы для теоретических занятий. Предусмотрены удобные раздевалки и душевые, тренерская комната.

В старом здании, построенном более 40 лет назад, умещались только несколько кабинетов, один зал и подсобные помещения. Чтобы комфортно организовать занятия, тренировки приходилось начинать ранним утром и заканчивать поздним вечером.

– Мы давно мечтали о современной спортшколе. Сами составляли план будущего здания, чтобы учесть все стандарты и сделать лучшие условия для наших спортсменов, – отметил директор спортшколы восточных видов единоборств и руководитель областной федерации карате Леонид Ким. – Мы очень довольны, что школа совершенствуется. Будем поддерживать высокие спортивные результаты. В начале декабря поедем на первенство России. В нашей сборной порядка 60 человек. У нас очень серьезные конкуренты из других регионов, но мы будем стремиться занять в командном зачете первое место.

Как рассказал министр стро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лексей Колеватых, работы идут в графике. В августе планируется их завершить, и в начале учебного года в школе стартуют тренировки каратистов. После реконструкции здание не будет нуждаться в ремонте еще долгое время благодаря современным материалам и технологиям.

– Сахалин и Курилы – спортивные острова. И чтобы люди проявляли еще больший интерес к физической активности, мы создаем самые комфортные условия для занятий спортом. Сейчас в регионе настоящий бум спортивных строек. В областном центре возводятся несколько масштабных объектов, в том числе олимпийского уровня, – отмети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Напомним,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идет строительство легкоатлетического манежа и центра бокса – сдача запланирована на следующий год. Кроме того, «Газпром» в рамках инвестиционной программы возводит два объекта: пятиэтажный центр водных видов спорта и универсальный спорткомплекс, где будут проводиться тренировки и соревнования по волейболу, баскетболу и спортивной гимнастике.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외교부, 재외공관장회의 개최

## 첫째날, '능동적 경제안보' 주제 토론 2일째 ... '지속가능한 평화' 주제 토론

외교부는 2023년도 재외공관장회의의 첫째 날인 3월 27일 오후 회의에 참석한 166명의 재외공관장들이 '능동적 경제안보'를 주제로 전문가와 함께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을 주재한 이도훈 2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5년 만에 개최되는 재외공관장회의의 첫째 날 주제가 능동적 경제안보라는 것은 글로벌 복합위기의 최일선에서 리스크를 감지하고 동시에 경제적 기회를 발굴하는 재외공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특히, 작년 12월에 신설된 외교부 내 '수출·수주 외교지원 TF'를 통해 우리 기업의 수출·수주를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면서 "재외공관이 현지 기업과 유관기관들과 원팀으로 긴밀히 협업을 줄 것"을 요청했다.

재외공관장들은 글로벌 공급망 위기 속에서 경제안보외교와 과학기술외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각각 이재민 경제안보대사와 신성철 과학기술협력대사의 강연을 듣고, 현장에서의 경험과 관련 정책을 건의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조태용 주미국대사는 "경제안보가 한미 외교관계의 중심이 된 상황에서 기술 경쟁력을 가진 우리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며 "국의 극대화를 위한 경제안보외교를 위해 새로운 경제질서 형성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재호 주중국대사는 중국의 위드 코로나 전환에 따라 한중 경제관계의 지속적인 심화·발전을 위해 중국 진출 우리 기업 지원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다층적인 대중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김홍균 주독일대사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공급망 다변화와 산업정책 도입 등 경제안보 현안 대응을 위한 EU와 독일 차원의 노력을 소개하고, 한-EU 및 한-독 간 협력 가능 방안에 대해 제안했다.

이상덕 주인도네시아대사는 "인도네시아가 광물 및 자원 부국이자 인태경제프레임워크(IPEF)에 우리와 함께 참여하고 있는 공급망 협력의 핵심 파트너"라고 설명하며, 우리 기업 진출 지원을 위한 정부 간 협력 강화 방안을 제안했다.

이우승 주아르헨티나대사는 광물자원 부국으로서 아르헨티나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등 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2023년도 재외공관장회의(3.27~31) 이틀날인 3월 28일 오전 재외공관장들은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주재 하에,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를 달성하기 위한 외교적 추진 방안에 대해 집중 토의했다.

이번 토론은 총 2부로 구성됐다. 1부 주제는 '담대한 구상에 기반한 대북 국제 공조'였으며, 2부 주제는 '북한인권외교 및 통일비전외교 추진'이었다.

김 본부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북한이 심각한 경제·식량난에도 불구하고 전례 없는 수준의 도발을 지속하며 역내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북한이 비핵화 협상으로 복귀할 수밖에 없는 전략적 환경 조성 과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외교적 노력의 결집을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공관장들은 정부의 담대한 구상 추진과 관련한 외교 최일선 현장의 경험과 의견을 공유하면서, 북한을 진정한 변화의 길로 이끌기 위해 각자 주재국에서 어떤 방향으로 외교활동을 펼칠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1부 토의에서 공관장들은 ▲북한의 핵위협을 억지(Deterrence)하고 ▲핵개발을 단념(Dissuasion)시키며 ▲대화 와 외교(Dialogue & Diplomacy)를 통해 비핵화를 이루어 나간다는 총체적 접근 하에 주재국 및 국제사회가 확고한 북한 비핵화 메시지 발신, 북한의 불법적 외화벌이 차단 등 대북 제재 이행에 더욱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어진 2부 토의에서는 공관장들이 주재국 및 국제사회에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 알리고 국제공조를 강화하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하고, 나아가 통일비전외교 하에 평화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산해나가기로 했다.

이 자리에는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도 참석했는데 이 대사는 작년 7월 임명 이후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협력 활동에 대해 설명했다.

코로나19 등으로 4년여 만에 개최된 이번 한반도 주재토론은 ▲담대한 구상 하의 북핵·대북 외교정책 방향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와 조응하는 북한인권외교 및 통일비전외교 등에 대한 공관장들의 이해를 제고하는 한편, 현장감 있는 의견을 수렴하고 우리 외교정책에 환류시킬 수 있는 유용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재외동포신문)

# 충북대, 사할린 한인 위한 동행 나서

## 러시아어문화학과 · 러시아알타이지역연구소, 사할린 한인 지원단 상반기 간담회

충북대학교 러시아어문화학과와 러시아알타이지역연구소가 충북대 인문대학에서 2023년 상반기 사할린 한인 지원단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오송종합사회복지관, 국민건강공단 청주서부지사, 대한적십자사 흥덕지구 오송단위봉사회, 오송읍행정복지센터, 청주시장례식장, 휴먼시아1단지 관리사무소 등 총 11개 기관과 단체가 참여해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주민들을 위한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할린 한인 지원단 간담회'는 매년 상·하반기에 각 1회씩 총 2회를 진행하며, 각 기관들이 연합한 사할린지원단 '한울타리'는 청주시 오송 지역에 거주하는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주민들을 위해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관련 자원을 공유하고 협력사업을 논의해 나가고 있다.

충북대 러시아어문화학과는 지난달 17일 오송종합사회복지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이번 간담회를 학내에서 개최하면서 민간학이 주도하는 해당 사업의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간담회 모습 (충북대학교 제공)

러시아어문화학과는 2023년도 사할린 한인 지원 사업으로 5월 가정의 달 행사와 사할린 한인사를 알리기 위한 도서발행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용화 충북대 러시아어문화학과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대학,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대학 만들기에 앞장설 것이며, 학과 학생들이 본인들이 가진 전공 역량을 지역사회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학과 차원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부매일]

# 천안시, 청룡동 행복지원단 사할린동포 한인회에 식료품 전달

## 사할린동포 40가구에 라면 40박스 · 생수 800개 전달

[대한경제=나경화 기자] 천안시 청룡동 행복키움지원단(단장 이문자)이 29일 천안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할린동포 한인회 40가구에 라면 40박스와 생수 800개 등의 식료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사할린동포 한인회는 2009년부터 청룡동에 정착해 현재 40가구 총 61명이 거주하고 있다.

행복키움지원단은 한국어 구사와 한국 문화 이해에 어려움을 겪으며 고국 생활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는 한인들에게 지난해 '사할린 동포 한국어 교육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등 사할린동포를 위한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이와함께 천안시도 지난해 '천안시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사할린동포의 권익증진을 위해 힘쓰고 있다.

이문자 단장은 "사할린동포 어르신들의 건강을 기원하며 앞으로도 천안시와 연계해 사할린동포를 위한 사



청룡동 행복지원단 사할린동포 한인회에 식료품 전달 모습 / 사진 : 천안시 제공

업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박의용 청룡동장은 "한국 생활 정착에 어려움이 없도록 사할린동포들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복지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대한경제)

# [신간] '언어로 본 한국인의 문화유전자'

## 한국어 속 문화 요소 알기 쉽게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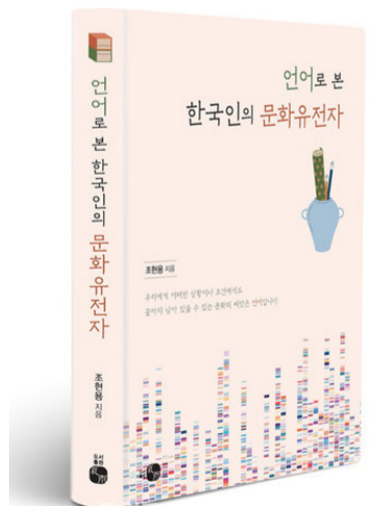
본지에 '우리말로 깨닫다' 코너를 연재하고 있는 조현용 경희대학교 교수(한국어교육 전공)의 새 책 '언어로 본 한국인의 문화유전자(도서출판 하우, 2023)'가 나왔다. 한류의 뿌리 한국어 속에 담겨 있는 문화 요소를 설명한 책이다.

필자는 "한국어와 한국인을 이해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 강의형식으로 편하게 쓴 책"이라면서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사랑하고, 한류의 근원을 알고 싶은 사람에게 권하는 책"이라고 말했다.

필자는 그러면서 "특히 한국어와 한국문화 연구자, 한국어 교사, 한글학교 선생님, 한국어 고급 학습자에게 한국어를 새롭게 바라보는 힘이 될 것"이라고 했다.

책은 도리도리, 곤지곤지를 비롯한 유아어부터 철성, 순가락, 온돌, 스승, 선비, 무당, 아리랑 등의 어휘 그리고 아름답다, 반갑다, 사랑하다, 좋다 등 우리가 날마다 쓰는 말을 흥미롭게 풀어내고 있다. 한민족을 잘 나타내는 우리, 한, 정 등을 새로운 시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책을 펴면 옛날이야기를 듣듯이 편한 마음으로 읽어 내려갈 수 있는 책이다.

필자 조현용 교수는 1966년 서울에서 태어나 경희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학교 대학원에서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경희대학교 한국어교육 전공 교수로 일하고 있다. (출처: 재외동포신문)



조현용 경희대학교 교수(한국어교육 전공)의 새 책 '언어로 본 한국인의 문화유전자(도서출판 하우, 2023)'

# 이 모 저 모

(2면의 계속)

Руководитель проекта Александра Кудряшова - член российской гильдии флористов, лауреат и победитель международных конкурсов в Москве, серебряный призер Национальной премии РФ за реализованный проект реконструкции территории Сахалинского областного краеведческого музея в номинации "Сохранение памятников истории и культуры", обладатель премии губернатор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области культуры и искусства.

Выставка будет работать с 31 марта по 2 апреля.

## Сахалин의 민족지학 학자, 지역 소수 민족들에 대한 새 책 출판

Сахалин 지역 과학 도서관에서 "민족지학 받아쓰기" 작은 조국: 역사와 근대성" 책의 발표식이 열렸다. 저자는 교직원이며 사할린 지역 사회회의 회원, 사할린 지역의 북부 토착민 협회의 회원인 에카테리나 코롤료바이다.

«오늘날 러시아에서는 우리나라의 모든 민족에 대한 질문을 포함한 민족학적 받아쓰기 캠페인이 많은 청중을 모으고 있다. 그래서 사할린 지역의 소수민족들만을 위한 민족학적 받아쓰기 자료를 만들고자 했다.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민족지학에 대한 관심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토착민의 역사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켜 이 지식을 지역 주민들에게 전파시키는데 있다» 라고 저자는 말했다.

이 책은 두 가지 언어(러시아어와 니브흐어)로 출판되었으며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북부 토착민들의 전통과 문화 유산에 대한 질문이 포함된 테스트 형식을 제시한다.

## Сахалинский этнограф выпустила новую книгу о малых народах региона

Презентация книги «Этнографический диктант «Малая родина: история и современность» прошла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ной научной библиотеке. Ее автор

- педагог, член общественной палаты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ссоциация коренных малочисленных народов Север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Екатерина Королева рассказала, что к написанию ее побудил популярный в России этнографический диктант.

- В России сегодня акция этнографического диктанта, где включены вопросы о всех народах нашей страны, собирает большую аудиторию. Так возникло желание создать этнографический диктант только для этносо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Данный проект призван не только повысить интерес к этнографии, но и привлечь внимание к истории коренных малочисленных народов, распространить эти знания среди населения области, - сообщила автор.

Книга издана на двух языках (русском и нивхском) и представляет формат теста, который включает вопросы о традициях и культурном наследии коренных малочисленных народов Севера, проживающих в регионе.

## Сахалин 출신 학생, 프로 대회에서 우승하여 백만 루블리 받다

Сахалин 건설, 주택 및 공공 서비스 전문대학의 학생인 다닐 토르치마코브는 프로 대회에서 우승하여 백만 루블리를 받았다. 그는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섬으로 증명서를 가져왔다.

지역 간의 "케드르 월드" 대회에서 그는 "메탈워크"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으며 그는 집에서 일하기 위해 이미 그의 개인상금으로 소형 용접 장비를 구입하기로 결정했다. 이제 다닐과 그의 멘토는 실수를 숙지하고 새로운 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 Миллион рублей за победу в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м конкурсе получил студент с Сахалина

Миллион рублей за победу в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м конкурсе получил студент Сахалинского техникума строительства и жилищно-коммунального хозяйства Данил Торчмаков. Сертификат он привёз на остров из Санкт-Петербурга.

На межрегиональном конкурсе «Кедр Велд» парень завоевал 1 место в компетенции «Слесарные работы с

металлом». Личные призовые деньги студент уже решил потратить на компактный сварочный аппарат, чтобы работать дома. Сейчас Данил вместе с наставником работают над ошибками и готовятся к новым соревнованиям.

## 사할린 주민, WhatsApp을 통해 접근한 사기꾼에게 160만 루블리 이상을 이체

베레즈냐키 마을에 사는 한 주민이 은행을 사칭한 사기꾼의 전화를 받고 WhatsApp을 통해 160만 루블리 이상의 피해를 입었다. 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사할린 지역 내무부 홍보부서를 통해 알려졌다.

3월 20일에 한 여성이 전화를 걸어 자신을 은행 직원이라고 소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녀는 모르는 사람이 피해자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았다고 경고하며 같은 방법으로 대출을 받은 다음 돈을 안전한 곳에 보관하라고 말해주었다.

피해 여성은 은행 로고가 화면에 나타나서, 사기꾼의 말을 믿고 지시대로 따랐다. 그 결과 그녀는 대출액 160만 루블리와 개인 저축액 13만 루블리의 피해를 입었다.

## Жительница Сахалина перевела мошенникам из WhatsApp более 1,6 млн рублей

Жительница села Березняки поверила мошенникам, которые позвонили ей от имени банка через WhatsApp и потеряла более 1,6 млн рублей. Подробности рассказала пресс-служба УМВД России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Установлено, что 20 марта ей позвонила женщина и представила сотрудницей банка. Она предупредила, что неизвестные оформили на ее имя кредит и посоветовала сделать то же самое, а потом сохранить деньги в безопасном месте.

Поскольку на экране высветился логотип банка, женщина поверила аферистке, и сделала все по ее инструкции. В результате она потеряла 1,6 млн рублей, взятые в кредит, и 130 тысяч рублей личных накоплений.

(사할린주 언론기관 자료에서)

#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Тел.: 50-00-50; 43-31-31

# "Полигранд"

Партнер, созданный для Вас!

Тел.: 42-49-54, 42-49-89

##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оддержи национальную газету! Продолжается подписка на 2023 год.

Только у нас самые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на 1 месяц — 101 руб. 0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ПР575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광고-광고

새고려 신문사는 독자 여러분이 신문에 신고자 하시는 광고나 생일 또는 여러 축하문을 접수합니다. 접수 방법은 전화: 43-59-80, 43-72-94.

이메일 : vika131065@mail.ru, skr@sakhalin.ru 로 연락 바랍니다.

### Уважаемые читатели!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редлагает печатные площади для размещения рекламы, объявлений и поздравлений.

Контакт. телефон: 43-59-80, 43-72-94.

Адрес эл.почты: vika131065@mail.ru, skr@sakhalin.ru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p><b>Издатель:</b>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p> <p>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사장(주필) 배 워토리아</p>	<p><b>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b>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p>	<p><b>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b>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p>	<p>Отпечатано в 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6-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3-00</p>	<p>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 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ПР575 Тираж 1100 экз.</p>	<p>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p>
--	---	--	--	--	--